데스크시각

이 종 태

슬로시티 해법

지난달 개봉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화제다. 주인공 벤자민은 영화 속에서 노인으로 태어나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노화를 거부하고 싶은 현대인들에게는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을 거스르는 그의 삶은 그리 행복해보이지 않는다. 물리학적 모순 때문이다.

농촌의 위기 읽어야

이와는 달리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주인공 팔순 농부는, 마흔 살의 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늙어간다. 불편한 다리를 마다하지 않고 소먹일 풀을 베기 위해 매일 산을 오른다. 심지어 소에게 해가 갈까봐 논에 농약도 치지 않는다. 산골의 신산한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련만, 팔순 농부는 그저 시간을 따라 아주 천천히 자신만의 만족한 삶을 그리고 있다. 스토리만으로는 아주 단순하고 지루하기조차 한 이 영화가 개봉 두 달 만에 300만 명에 가까운 관객들의 가슴을 울릴 태세다.

무엇이 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 '워낭소리'에는 피를 말리는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고민도 없고, 중산층이 되려는 발버둥도 없다. 컴퓨터 등으로 대변되는 기계 주의, 나만이 최고인 유리파편 같은 개인주의, 그리고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토스트 등 패스트푸드도 없다. 머리를 뒤흔드는 랩(rap)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땅을 닮은 팔순 농부의 삶이 시간을 거스르지 않았던 것에 환호했던 것 같다. 봄이면 초록 논에 온기처럼 물이 돌고, 가을이면 노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위대함에 거친 숨을 토하며 달려왔던 우리네 바쁜 삶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슬로라이프(Slow Life)'에 감동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네 농촌의 현실은 극장에서 느끼는 한가한 감동과는 거리가 멀다. 농촌이 사회 전반의 흐름이나 경제적인 구조에서 비켜나 있지 않은 한 '워낭소리'는 그저 영화 속의 얘기일 뿐이다. 어쩌면 영화는 사라져가는 농촌의 풍광과 어려운 삶, 노인들만 남은 황량함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담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출산율을 높이자면서 산부인과 병원조차 없는 마을, 열악한 교육환경, 농약값·비료대 인상으로 인한 척박한 살림 등에서 낭만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E·F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만일 경제학이라는 것이 국민소득이라든가 성장률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언제까지고 넘어서지 못한 채, 빈곤·좌절·소외·절망·스트레스와 같은 현실의 모습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경제학을 폐기하고 새로운 경제학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한다. 백번 곱씹어도 옳은 말이다.

최근 전남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녹색관광상품으로 '슬로시티(Slow City)'를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담양군 창평면, 완도군 청산면, 신안군 증도면, 장흥군 유치·장평면 등 슬로시티로 지정된 4개 지역에 74억 원을 투입해 마을특색에 맞는 생태문화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라진 원형질 찾기

이를 위해 남도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도 한옥 숙소, 방문자센터를 조성하고 쌀 엿·한과·전통 장 체험, 갯벌 생태체험 등을 마련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농촌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숫자 등 외형적인 효율성에만 매달려서는 현명한 '슬로시티'가 아닌 '고담시티(Gotham City·바보들의 도시)'만 양산할 수도 있다. 빈곤과 절망으로 대변되는 농촌·농민의 위기를 읽어야 한다는 얘기다.

'슬로시티'가 성공하려면 자연의 느린 시간에 사람들의 시간을 맞추는, 그리고 자연과 생태의 순환이라는 사라진 원형질을 찾아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2부장〉 jtlee@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최 영 태

거꾸로 가는 역사, 그리고 국민의 힘

나는 강의 시간에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 긍정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해방 후 최빈국에서 출발하여 불과 반세기만에 중진국 이상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말한다. 민주화 역시 경탄할 만한 일로서 한국의 정치발달은 20세기 후반 아시아와 제3세계에서 일어난 정치발달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민주화를 위해 특별한 역할과 희생을 치룬 호남인들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데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도 될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최근 나의 이런 긍정적 역사관과 그것에 토대를 둔 강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면, 집권세력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기관장들을 임기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갈아치우면서 다른 한 입으로는 법치 운운하며 국민들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려 한다.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대신 자율학습의 기회를 허용했다고 해서 해당 교사를 해임시켜버리는 무지막지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 어렵사리 이룩한 남북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다시 옛 대결 시대로 돌려놓고 나서 그것을 대북정책의 정상화라고 자화자찬하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게다가 현 집권세력이 그토록 자신만만해 하던 경제 분야에서마저 발전은커녕 오히려 제2의 IMF을 걱정해야 할 만큼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다가 정말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 모두에서 '겨울공화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고작 IMF를 초래한 김영삼시대와 군부독재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했단 말인가?

많은 역사가들은 역사의 진보를 믿으면서도 그 진보는 결코 일직선으로 전진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퇴보도 있고, 정체도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았을 때 인류문명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진보사관의 요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록 일시적이나마 퇴보와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인가?

요즈음도 사극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사극을 보고 있노라면 옛날 옛적에도 위정자들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 민심, 그렇다. 경제발달과 민주주의 발달 양면에서 세계 각국의 칭송을 받을 만큼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우리 국민이 어찌 역사의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잠시 정체와 퇴보의 시기를 겪게 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진보의 시계추를 제 자리로 돌려놓고 말 것으로 믿는다. 다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역사의 진보라는 게 '익은 감 저절로 떨어지듯이' 시간만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우리 역사가 증명하듯 진보는 국민들의 피와 땀의 총합의 정도만큼만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경제발달과 정의, 민주주의 문제 모두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남대 사학과 교수〉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농산물 택배사고 취약 … 전문 택배체계 구축 했으면

농산물 택배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농산물은 그 특성상 조금만 잘못해도 쉽게 깨지거나 상처를 받는데, 이때 문제는 택배회사들이 손상된 농산물을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농민들이 상품을 받는 소비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거나 변명하기도 힘들어서 울며겨자먹기로 농민들이 죄다 책임지고 보상하거나 반품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을 택배차량에서 운송하는 것을 보면 무겁게 쌓아놓고 던지고 포개고 하는 일이 다반사라 견뎌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거기다 농산물은 제때 배달이 생명인데 택배가 늑장을 부리다 상하는 경우도 적잖다.

이렇듯 택배업체들의 소홀로 내용물의 손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대부분 농민들의 잘못으로 돌려 보상을 회피하곤 한다. 결과적으로 농가들만 손해를 떠안고 있는 꼴이다. 그러니 농산물 택배 시스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택배체계 구축이 요망된다.

▲임중선·전남 담양군 고서면

기고

진 선 기

목 타는 한반도

겨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대지가 목이 말라 아우성이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여기저기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다간 먹는 물마저 바닥이 날 지경이다. 기상청 예상대로라면 5월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원 고갈로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봄철 농작물 피해마저 우려되는 등 최악의 가뭄사태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인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여름의 경우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많은 비를 뿌리는 태풍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저장 물 자체가 부족하다. 사실 매년 통상적으로 겨울과 봄에는 가뭄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여름과 가을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가뭄으로 연결되는 바람에 특히 남부지방이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예년에는 통상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많은 비를 뿌렸으나 작년에는 1개만 영향을 미쳤던 점도 장기 가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지난해 전국의 강수량은 1973년 이후 5번째로 적은 평년의 78%에 그쳤고, 서울의 작년 상대 습도는 59.5%로 평년보다 7.4%포인트 낮아 1908년 기상 관측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2000년대에는 1970년대에 비해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온난화가 진행되면 집중호우를 포함, 각종 이상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며 "호우일 수의 증가는 홍수가 증가하고 가뭄의 지속기간도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늘 쳐다보며 천재지변처럼 가뭄 곤란을 겪어야 하는가.

최근 정부의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조사결과를 보면 앞으로 인구 증가, 상수도 보급률의 확대, 공업생산의 증가에 따른 물 소비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물 부족이 발생해 2011년에는 약 18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광주시 차원의 중장기적인 수자원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물로 인한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환경적으로 수려하며 모범적인 중소 규모의 댐을 건설해 물 자체를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절약 캠페인 활성화, 수도료의 현실화를 고려하며 상수도의 누수 방지, 중수도 확대, 절수기기의 보급 확대, 절수형 산업구조 형성 등을 통해 효율적인 수요관리도 필요하다.

지하수는 우리나라 지질구조상 이를 저장하는 대수층이 빈약해 비상시나 상수도시설의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대한 보조적인 수원으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에 중점을 두자.

'삼천리 금수강산'은 물 좋고 산 좋은 우리나라의 상징이었다.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정부나 광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물대책이 요구된다.

〈광주시의회 부의장〉

서비스업 종사자 '친절 스트레스' 해소책 필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의 판매원, 소비자 상담센터의 전화 안내원 등은 대표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을 일컬어 '감정노동자'라고 한다. 또한, 일반 식당, 열차 승무원, 은행창구 직원, 일반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고객들을 응대해야 하는 직원들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항상 웃고 친절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클레임이 들어오고 이는 그 직원의 해고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다.

특히 직원들의 친절도와 서비스 정신은 항상 고객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받고, 직장 상사들로부터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들은 근무시간 전체를 통제받고 감시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곱빼기가 된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견디지 못해 퇴사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거나 우울증 같은 2차 질병으로 옮겨가게 된다.

노동당국에선 우리나라 감정 노동 종사자들에게는 회사가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하도록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토록 의무화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정 소진이 심한 일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하도록 하고, 남은 근무 시간은 여러 업무를 순환하는 형태다. 물론 휴식 시간과 휴가는 정해진 만큼 철저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동

사설

잇단 악재 겹친 여수엑스포 '속빈 강정'되나

오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가 잇단 악재로 성공 개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이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불투명해진 데 이어 여수엑스포의 핵심 기반시설인 아쿠아리움 역시 민자유치가 불발된 것이다.

아쿠아리움에 유일하게 투자의사를 밝힌 두산, 한화 컨소시엄이 200억 원만 투자하고 500억 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요청해 애초 민간투자 규모에 훨씬 못 미친 게 탈락의 이유다. 이번 아쿠아리움의 민자유치 실패는 자칫 민간투자로 시행할 다른 기반시설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실제로 여수 엑스포가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들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엑스포 부지 내 200실 규모의 콘도를 지을 사업자 공모도 응모업체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로 마감됐으며 유원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자도 나타나지 않아 올 스톱됐다. 이대로 가다간 규모축소는 물론 졸속행사를 면하기 어렵다.

이처럼 여수엑스포가 추진하는 민자사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때문이다. 불황 여파로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도 여수엑스포에 찬물을 끼얹는 주범이다.

엑스포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약 2조389억 원에 달하는 총 사업비 중 34.9%인 7천107억 원을 민간투자로 조달하기로 했다.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사실상 민간으로 떠넘긴 셈이다. 정부 스스로 엑스포 지원에 소극적인 데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각 사업별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민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여수엑스포는 국가 사업이지 지자체 사업이 아닌 것이다.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 2순환도로

광주시 제2순환도로가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한다. 민간자본 사업으로 추진된 제2순환도로의 예측 교통량이 50% 이상 뻥튀기 되면서 광주시가 적자 보전금으로 도로 운영권자에게 매년 수 백억 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제2순환도로의 민자구간 통행료를 100~2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올해 33억 원의 추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행료를 인상해도 시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적자를 보전해 주도록 규정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라 시가 부담하는 적자 보전금은 개통 첫해 132억 원이었으나 지난해는 205억9천만 원으로 무려 60%나 늘었다.

이 같은 문제는 잘못된 추정 통행량에서 비롯됐다. 1구간의 경우 하루 평균 통행량은 당초 추정량의 40~50% 선에 그치고 있다. 오차 범위가 무려 50~60%에 달한다. 이런 엉터리 추정 교통량의 오차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2순환도로에 시민의 혈세를 마냥 낭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잘못된 재정 보전금 책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 틀린 수요추정의 부담을 광주시가 떠안도록 규정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경제성 부각을 위해 교통량을 부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재정 부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운영권자가 보전금 책정 기준 완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운영권 지정을 취소하고 차라리 관리·운영권을 시가 직접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를 '밑 빠진 독'에 쏟아 부을 수는 없지 않은가.

無等鼓

잭 웰치(74) 전 GE회장이 통렬한 반성을 했다. 그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단기 수익모델과 주가 수익에 집착하는 주주가치를 전략으로 삼은 것은 멍청한 짓이었다"고 고백했다. '주주가치 운동(Shareholder Value Movement)'을 선도하며 경영의 귀재로 불린 그가 실책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1981년 GE 회장 취임 직후 한 연설에서 "시장에서 1~2위 기업이 돼서 극대화된 가치를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가차없는 구조조정과 감원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주주가치 극대화는 이후 20년 넘게 이윤추구를 최고의 기업가치로 믿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의 바이블 노릇을 했다.

비판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이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재분배하는데만 열을 올려서다. 매사추세츠대학 크로티 교수도 미국 비금융기업들이 올리는 순이익의 60~80%가 배당금·자사주 매입·스톡옵션 등에 들어간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주주에게만 책임을 질 뿐 일자리 창출· 환경문제·지역사회 기여 등은 소홀히 하거나 무시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외환위기 이후 몰려온 해외투기자본이 고배당을 요구하거나, 탈세를 일삼아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도 다반사가 됐다. 소버린의 SK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 브릿지 증권의 파행경영 등이 그 예다.

주주가치

최근의 경제위기도 월가의 파생상품 남발 등 주주가치 극대화가 빚은 비극일 수 있다.

경영에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기업가는 수익에 대한 요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즉 품위에 대한 요구 간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잭 웰치도 뒤늦게 "경영자에게 중요한 것은 직원과 고객, 그리고 상품"이라고 바로 잡았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A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